

레알 마드리드 14번째 유럽축구 '왕중왕'

UEFA 챔피언스리그, 비니시우스 결승골... 1-0 승리
24-4 슈팅 우세 리버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눈물
안첼로티 감독 네 번째 빅이어 최다우승 신기록

많은 사람이 리버풀 우승을 점쳤다. 실제로 슈팅은 리버풀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의 한 방이 더 강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통산 14번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북부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1-22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후반 14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선제 결승골을 골까지 지켜내며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에 3-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던 2017-18 시즌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 번 빅이어를 들어 올리며 통산 14번째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대위업을 달성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횟수 2위팀인 AC 밀란(7회)보다 정확하게 두 배 더 많은 우승을 차지했다.

또 카를로 안첼로티는 레알 마드리드를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2013-14 시즌 이후 8년 만에 다시 한 번 정상으로 이끌며 밥 파이스(리버풀 1977, 1978, 1981)와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 2016, 2017, 2018)을 제치고 최초로 4차례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 됐다. 안첼로티 감독은 2003년과 2007년에는 AC 밀란을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경기 시작은 다소 어수선했다. 파리 인근의 교통 체증과 함께 가져 티켓 소동으로 리버풀 팬들의 경기장 입장이 늦어지면서 경기 시작 시간이 미뤄졌다. 당초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에 열릴 예정이던 경기는 두 차례 연기 끝에 36분 늦게 Kick오프됐다. 경기 초반은 리버풀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경기 시작 15분 동안 슈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전반 16분 모하메드 살라의 슈팅을 시작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2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북부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1-22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1-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스시스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 리버풀의 공격이 계속 무위에 그친 것은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쿠르투아는 리버풀의 유효슈팅이 나올 때마다 눈

부신 선방 쇼를 펼쳤다. 오히려 골망을 먼저 흔든 쪽은 레알 마드리드였다. 전반 43분 리버풀의 골망이

흔들렸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결과 카림 벤제마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무효 처리됐다. 하지만 이 장면이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지는 단초가 됐다. 결국 후반 들어 레알 마드리드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펼친 끝에 골문을 열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오른쪽에서 내준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득점포를 터뜨렸다. 이후 리버풀은 계속 쏘아기만 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후반 20분 지오구 조타를 투입하며 대반격을 노렸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탄탄한 수비는 리버풀의 역습을 꺾었다. 클롭 감독은 나비 케이타와 로베르투 피르미누까지 교체 투입하며 한 골을 넣기 위해 애썼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그물망 수비에 계속 걸렸다. 마지막까지 쿠르투아의 선방은 계속 이어졌고 살라를 비롯한 리버풀 공격수들은 계속 땅을 쳤다. 리버풀은 슈팅 숫자에서 24-4로 크게 앞섰지만 추가시간 5분이 지나고서도 골은 터지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단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고 도 빅이어를 들어 올렸다. 스키아데일리/뉴스시스



ISU, 최민정 '위대한 재기의 장면' 톱5 선정

“부상 극복하고 다시 최고의 자리에 우뚝”

최민정(24·성남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선정한 2021-2022시즌 '위대한 재기의 장면' 톱5에 올랐다. ISU는 28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등 빙상 종목에서 각각 올 시즌 시련을 딛고 성공한 5가지 장면을 소개했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부문에서 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ISU는 “최민정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해 세계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로 올라섰지

만, 올해 부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성적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1000m 은메달, 계주 은메달 등 메달 3개를 수확해 다시 최고로 우뚝 섰다.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4관왕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최민정은 부상 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도중 대표팀 라이벌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기도 했다. ISU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가져간 중국 대표팀, 베이징 대회 남자 500m 금메달을 목에 건 사오양 류(헝가리), 단 38세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17일 중국 베이징 메달 플라자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메달 세리머니에서 금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시스

에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의 주역이 된 캐나다 샤를 아를랭, 베이징올림픽에서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획득한 네덜란드 여자 대표팀을 최민정과 함께 가장 좋았던 5개의 사례로 선정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 10.5%로 종영

배우 이준기 주연의 SBS 금토극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10%대의 시청률로 종영했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어게인 마이 라이프' 16회 최종회 시청률은 10.5%였다. 이 드라마는 첫 회 5.8%로 시작해 7~8%의 시청률을 보이다 9회 처음 10.1%로 10%대 시청률을 넘었다. 이후 15회에서 12%로 자체 최고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최종회 시청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최종회에선 독기를 장전한 김희우(이준기 분)가 검사복을 벗고 정치권에 입성, 조태섭(이경영 분)과 부패 카르텔을 모조리 소탕하고 다시 정의의 힘을 세우는 활약이 펼쳐졌다. 김희우는 김희아(김지은 분)와 위장 결혼까지 하며 이슈를 생산했고, 특히 조태섭에게 파국이 시작되기까지 그의



어겐마이준기. 삼화네트웍스, 크로스믹처스

수행비서 한지현(차주영 분)이 김희우에게 힘을 보탤다. 결국 조태섭은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권력과 폭력을 휘둘렀던 악행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끝내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되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한편 후속작으로 서현진 주연의 '왜 오수재인가'가 다음달 3일 오후 10시 방영된다.

나의 건강 책임포인트 리턴업

Returnup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미네랄 2종
(아연/구리)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비타민 4종
(A/C/E/베타카로틴)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사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식약처 일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282-9988

리턴업 전속모델 성유리